

내년 예산 광주 3조3081억 · 전남 8조6525억 확보

AI집적단지 2단계 · 영재고 설립 등 AI역점사업 반영 전남 '역대최대' 예산확보 성과...신규사업 대거반영

광주 AI(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 AI 2단계 기획 등 AI 중심도시 광주를 위한 주춧돌이 놓여졌다.

광주시는 AI 영재고 설립용역 10억 원 · AI 2단계 기획 용역 7억 원 등 내년도 국비 3조3081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2.6억 원 늘어난 규모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신규사업 67건 1267억 원, 계속사업 345건 3조1814억 원을 확보했다.

그 동안 공을 들인 인공지능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과의 융합,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 미래 모빌리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내년도 국비에 반영됐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확보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인재 양성부터 창업 · 기업 성장,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시설 구축

을 위한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2단계 기획용역 사업비(7억 원)와 뿌리부터 튼튼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영재고 광주 설립 기획용역 사업비(10억 원) 등이 눈에 띈다.

또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32.3억 원) ▲인공지능 기반 양방향 초개인화 K-돌봄복지 서비스 실증사업(4.5억 원) 등도 반영돼 인공지능 의료지원서비스 구축과 활용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드높일 문화예술사업 예산 확보도 성과 중 하나다.

아시아 캐릭터산업 대표도시로 도약을 위한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 · 운영(58억 원), 첨단 실감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6억 원), 광주의 미디어아트 인프라를 활용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장 · 제작랩 구축을 위한 ▲디지털아트 컬처랩 구축 · 운영(30억 원), 융·복합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공간 조성을 위한 ▲수원 문화예술융합센터 건립(8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지자체) 사업은 지난해 44.4억 원보다 70억 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51.4억 원을 확보했다.

청소년 돌봄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정서 · 행동장애 청소년의 상담 · 치료와 보호 · 자립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 광주청소년치료 재활센터 건립(10억 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호남권(광주 · 전남 · 제주) 청소년에게 치료 · 보호 · 교육 · 자립이라는 종합적 · 전문적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숙원 사업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C 구간 확장(10억 원) ▲무등산 방풍포대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3.9억 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44.6억 원) ▲광

주 중부경찰서 신설(30억 원) 등도 반영돼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시각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랩 구축(14억 원) ▲공공개발형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 사업(70억 원) 등의 예산도 최종 확정됐다.

강기정 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신속한 집행계획을 세워 조기에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내년 국고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인 8조 652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2년 연속 국고예산 8조원 대 시대를 열었다.

김영록 지사는 26일 오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2023년도 국고건의 정부예산 반영 성과'를 직접 설명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에 전남 예산이 이같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8조 3914억원 대비 2611억원(3.1%)이 늘어난 규모다.

전남도는 국회중역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간 국비 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가운데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국회단계에서 한 톨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로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차세대 에너지 산업, 미래첨단 전략산업, 문화 · 관광 · 농림 · 해양 분야에 골고루 반영돼 산업별로 균형 있는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최대 성과로는 총사업비 4조 7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예산 총 100건, 1488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국고예산은 차세대 에너지 산업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기지화를 위한 '그린수소 에너지 시설 타당성 연구용역비(2억원) 반영은 향후 총사업비만 1조 6000억원

에 달한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받는다.

또 여수 · 광양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을 비롯,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분야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5억원, 조선 · 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32억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10억원 등을 확보했다.

지식부진했던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치 분야는 설계비 등 2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국 14개 권역 심뇌혈관센터를 총괄할 연구소 설립이 가시화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초광역 관광거점 인프라 구축도 탄력이 기대된다.

남부권 광역개발 3개 선도사업으로 호반 프롤링 공연장 조성 24억원,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조성 12억원,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3억원 등이 반영됐다. /조일상 · 박종배 기자

'40cm 폭설' 광주 · 전남 피해 '눈덩이'

광주, 잔설 · 포트홀 · 제설제 부족 '3중고'...곳곳 빙판 전남 농축산 피해 11억6200만원 집계...더 늘어날 전망

사흘간 최고 40cm의 폭설이 내린 광주 지역에 눈이 쌓였지만 제설제가 부족한 데다 포트홀까지 생기면서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광주 지역 도로 곳곳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40cm 내린 폭설 여파로 도로 곳곳에 눈이 쌓인 상태다.

주요 도로는 눈이 녹은 상태지만 여전히 이면 도로와 도로 중앙선에 가까운 한 차로는 눈에 묻혔다. 우회전 도로 갓길에 눈이 쌓여 차선이 좁아지면서 차량 통행이 뒤엉키는 등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건물이 밀집돼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도로의 경우 여전히 빙판이 형성돼 있어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재 눈을 녹일 수 있는 제

설제 등 장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기준 광주시 · 5개 자치구의 제설제 잔량은 1742t이다. 종류별로는 소금 1364t, 친환경 제설제 219t, 염화칼슘 159t 등이다.

울 겨울 시 · 자치구가 확보한 제설제는 총 8118t이다. 이날 17일부터 19일까지, 22일부터 24일까지 2차례 폭설이 내리면서 제설제 6276t을 소진해 남은 제설제량은 21.45%에 불과하다.

눈을 치우는 굴삭기 · 제설제 살포기 등 장비도 광주시와 지자체가 보유한 58대 외에도 민간 장비 137대까지 동원했다.

눈이 녹은 길의 경우 '도로 위 불청객'이라고 불리는 포트홀(도로면 패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눈이 내린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포트홀 관련 신고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내린 눈이 녹아 도로 홈에 스며들어 수축 · 팽창을 반복, 곳곳에 포트홀을 만들어 낸 탓이다.

전남에도 30cm 안팎의 폭설이 내린 가운데 농 · 축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전남 지역에 내린 폭설에 따른 재산 피해액이 이날 오후 6시 기준 11억 6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요 피해 현황은 담양 · 장성 · 영광 · 강진 · 곡성 · 보성 · 화순 · 순천 등 8개 시 · 군 84개 농가에서 시찰하우스 137동(총 8만 184㎡)이 파손됐다. 피해 규모는 7억 4000만 원에 이른다.

축산 분야도 순천 · 담양 · 곡성 · 보성 · 화순 · 함평 · 장성 등 7개 시 · 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한우 · 오리 · 돼지 축사를 비롯해 퇴비사 등 축산시설 13곳, 35개동(총 1만 2647㎡)이 부서져 피해액이 4억 5800만 원으로 늘었다. /김도기 기자



'도로 위 암살자' 포트홀 정비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진곡산단도로에서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작업자들이 포트홀(도로 노면 패임)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양변기에 물 채운병 넣기

설거지 전 미리 휴지로 닦기

양치컵 사용하기

한 번에 모아서 빨래하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